종회의원 후보등록 마감

15개 본사 29일 표결

조계종 선거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선직과 간선직 입후보자 등록이 21일과 19일 각각 마감됐다. 등록 마감결과 직선직의 경우 9개교구 본사가 표결없이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나머지 15개 교구본사는 29일 표결을 벌이게 됐다. 4명의 직선직 종회의원이 배정된 직할 교구의 경우 모두 9명이 입후보해 2대1 이상의 경쟁율을 보였으며 마곡사, 선운사의 경우 6명씩 입후보해 3대1의 비교적 높은 경쟁율을 보이기도 했다.

19일 등록이 마감된 직능직(간선)대표 중앙종회의원 후보로는 모두 37명이 등록해 1.75:1의 경쟁율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강원대표와 행정대표에 각각 5명씩 등록해 가장 높은 경쟁율을 보였다. 비구니 대표 중앙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가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10명의 스님으로 등록됐다. 직능직과 비구니 대표 중앙종회의원은 26일 직능직 종회의원 선출위원회가 선출하게된다.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 선거가 '3선공방'과 후보자들의 잇단 출마선언으로 점차 가열되고 있다.

◇조계종 직선직 종앙종회의원 후보등록 현황

교구	등록명단	교구	등록명단
직 할	지현, 성관, 철우, 종림, 자용, 종후, 광복, 성해, 법민	쌍계사	영담, 정인
용주사	정대, 세영	범어사	광진, 경민, 종훈, 석호
신흥사	무산, 지홍, 청화, 마근	통도사	정우, 현대, 동하, 원천, 정각
월정사	도완, 정념, 부동	고운사	설송, 근일
법주사	진구, 지명	금산사	평상, 원행
마곡사	진각, 장곡, 학중, 윤원, 진성, 혜철	백양사	성오, 보연, 화범, 진공
수덕사	인행, 정묵, 지만	화엄사	진만, 종삼, 명관
직지사	법등, 법보	송광사	법종, 지원, 정인, 영조
동화사	성문, 혜정, 종문	대둔사	원학, 원우, 진아, 무여
은해사	법일, 현소, 돈기, 장적	관음사	종하, 탄우
불국사	종광, 종상	선운사	대원, 선법, 대우, 진원, 법경
해인사	수완, 능관, 도각	봉선사	일면, 혜림, 경훈

◇조계종 간선직(직능직) 중앙종회의원 후보등록 현황

분야	등록명단	분야	등록명단
율 원	성우, 철우, 무관	문 화	도현, 여연, 영배
선 원	돈관, 명진, 현봉	법 제	정휴, 현응, 상덕
강 원	지욱, 수진, 대각, 도형, 지안	행 정	정우, 원서, 장윤, 원우, 현근
교 육	향적, 밀원, 법성, 지하	포 교	법민, 지홍, 원명, 현진
사 회	진관, 해관, 법안, 효림	비구니	도문, 수현, 일법, 운달, 법성, 해주, 본각, 지형, 계호, 경륜
복 지	제원, 혜창, 효종		

백련문화재단·대각회에 선거권
공불협, 중선위 중립요구 질의
3선 출마 반대 정진법회

◇월탄, 설조, 지선스님 공동 기자회견.

◇월주스님 추대위 기자회견.

월탄, 지선, 설조스님이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월주스님의 3선 저지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종단 지도자 대화의 모임'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월주스님추대위원회 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3선이 아닌데 3선관련 토론을 하자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3선 공방'은 후보자들이 직접 나서는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19일 연백문도회로부터 총무원장 후보 추대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입후보 의사를 밝힌 지선스님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며 월탄스님도 종책다듬기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공식후보등록이 시작되는 11월 2일 이전에 모든 후보들의 공식출마선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열기는 급속도로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33차 회의를 열고 재단법인 백련문화재단과 대각회 소속 임원과 사찰 운영자에 대해 선거권이 있다고 결의했다. 선관위는 회의에서 두 재단이 조계종의 종지를 봉대한다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분명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두 재단으로부터 정관개정을 분명히 하겠다는 각서를 24일까지 제출토록 했으며 두 재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공정선거를 위한 범불교도협의회(이하 공불협)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명백한 중립의지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중선위에 접수했다.

공불협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송월주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추대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지 성타 정락 도영스님을 총무원장 선거법 제2장 제3절 1조 2항 등에 의거 호법부에 제소할 것 △중선위 위원 원우스님의 '송월주스님 총무원장 후보 추대위원회' 집행위원을 겸임에 따른 중선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해명 △공불협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한데에 따른 근거와 답변 등을 요구했다.

●…송월주 총무원장 3선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3선 출마강행을 반대하는 정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활동보고, 주제설법, 종정스님과 원로스님께 드리고 탄원의 글, 발원문, 결의문 낭독,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이날 법회에 동참한 70여명의 스님들은 △10월30일과 11월 4일, 11일 각종 승려정진법회 봉행 △ 3선 출마포기 촉구 서명운동 △각 사찰 입구에 3선출반대 현수막 게시 △사형사제와 도반들과 매일 토론과 연락을 결행한다 등의 실천 지침을 결의했다.

임연태·도필선 기자
(ytlim@buddhapia.com)

목어

문화의 달에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 열리던날, 전시장에는 주최측인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간부스님들과 당선자 그리고 많지않은 하객들이 자리했다. 직함을 가진 스님들, 문화인을 자처하는 불자들은 이런 자리에 안나오고 다 어디 갔을까. 예년에는 문화부 장·차관도 나왔고, 지난해에는 대선때문인지 정치인 부인까지도 찾아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불미전은 불교계의 유일한 공모전이다. 그런 전시이기에 조계종 중진스님들은 물론 각 종단 대표들과 미술계 인사들이 관심과 축하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만 불미전은 조계종 잔치에서 한국의 미술잔치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주최측과 불교계인사 모두 신경써야 할 일이다.

〈고려대장경 해제〉 출판기념법회에는 월주스님, 지관스님이 나오시고 이어령 前 문화부장관도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 대장경 전산회에 동참하고있는 불자들도 기쁨을 함께했다. 그런데도 길상사 경내 다과회에서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조촐해야할 자리가 아닌데…"

불사의 의미로 보아 좀더 성대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리라. 하기야 스님들이 개인 출판기념회를 열어도 화환이 줄을 있고 발디딜틈이 없지 않은가. 불교문화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한 단면이다.

성철스님 다비식 그림전도, 수안스님 개인전 테프커팅에도 직함가진 스님들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인가 시간을 쪼개 수안스님 전시장에서 축사를 하고 작품을 눈여겨 감상한 법산스님(동대 불교대학장)이 돋보였다.

스님들이 자주 전시회에도 가고, 음악회에도 가고, 책방에도 가고, 책읽기 법회도 지도하는 등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쏟아야 겠다. 문화의 세기 21세기에 불교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다.

지방에 계신 조계종 종회의원 스님 한분은 서울에 올때마다 책방 '여시아문'에 들려 신간을 비롯 여러권의 책을 산다. 당신도 보고 신도들에게 선물도 하고, 상좌인 군법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다.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고 성원하는 스님들이 주지도 되고 종회의원도 되고 총무원장도 됐으면 좋겠다. 10월 문화의 달에 조계종에는 선거바람이 불고있다. 선거문화라도 잘 가꿔야 할텐데….

"사찰·교회등 납골시설 사후통보제 허용해야"

조계종 '장묘법 개정 불교방안' 공청회

"장묘법 개정안 제12조(사설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등)에 '사찰 등 종교시설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이 22일 오후 사회복지대학 강의실에서 '장묘법 개정(안)에 따른 불교계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화장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사찰·교회 등에 '사후 통보제' 형식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가정복지과 신현수 과장의 '장묘제도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와 금왕 광명선원 주지 무애, 시흥 영각사 주지 현법, 사회복지재단 유정석 자문위원 등의 토론으로 진행된 공청회는 화장·납골에 대한 당위론과 관심은 높지만 전문적인 법적·제도적 정보에 약한 불교계에 실질적인 법·제도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정부에 영탑·납골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 화장문화의 노하우와 경영상의 애로점을 정부측에 상세히 전달했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신현수 과장은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는 높지만 실제 참여도가 낮은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은 묘지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3분의 2이상이 화장을 대안으로 지목하면서 국민의식개혁,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법령제도 개선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실제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화장 찬성자의 65%만이 '참여하겠다', 22%는 '안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종교별 화장수용율이 무교-불교-기독교 순인 것은 아직까지 종교계가 화장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장후의 장례방안을 묻는 질문의 경우 '산이나 강에 뿌리겠다', 납골당 안치, 납골묘 안치, 종교시설에 안치 등의 순으로 응답해 종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현법스님은 "유럽의 경우 대부분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에서 종교법의 전통에 따라 납골을 안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찰·교회별로 신도 수에 맞게 납골당이나 탑묘(영탑)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납골시설 등을 엄숙하면서도 깨끗하게 만들어 불교계가 화장문화 확산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무애스님은 "납골당을 혐오시설로 보는 시각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부감 없는 화장시설로 영탑을 제안했다. 서랍식 형태의 납골당이 무위탁 행려병자나 사산아가 수용되는 혐오스러운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영탑은 학교에서 소풍을 올 정도로 공원같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전통적(현대적 부도)이면서도 불교에 적합한 장묘시설이란 설명. 스님은 이밖에도 화장시설 이용자에 대한 정부의 저리융자, 화장제 필요성에 대한 사찰의 꾸준한 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재단이 22일 개최한 '장묘법 개정안에 대한 불교대응' 공청회.

유정석 자문위원은 장묘법 개정안 법조항의 부족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납골당과 영탑은 '건축법' 등 타 법률에서는 '묘지'에 속하지 않아 법률해석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 장묘시설 수급계획이 개발제한구역·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 내세관은 종교단체와 밀접하므로 종교시설내의 납골시설을 법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점, 벌칙조항이 비현실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영리목적의 무허가 집단묘지나 개인 사설묘지가 똑같이 처벌)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편 사회복지재단은 종단차원의 '불교화장문화 추진위원회'를 조만간 결성키로 하고, 화장문화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 캠페인 등을 내년도 연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종단을 '탐착'의 나락에서 건질 가르침을 주옵소서!

원로 스님들께 올리는 탄원의 글

귀의 삼보하옵고, 제방에서 수행납자를 지도하시고 수행에 진력하시는 원로 대덕 스님들께 삼가 올립니다. 정각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초발심으로 입문하여 부처님 인연을 만나, 세상사 인연을 공부 재료로 삼아 정진하고자 하니 또 다른 공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로 스님들께서는 5, 60년대 조계종의 법통을 세우고 청정승단 본래의 모습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83년 구종법회와 94년 종단개혁을 염원하였을 때 스님들께서 앞장서 주셨음을 종도된 도리로 어찌 잊겠습니까. 조계종지를 다시 세우심은 조선 오백년과 일정치하 36년의 흐트러진 종풍을 바로 세우심이며, 종단개혁을 앞에서 이끄심은 종단의 앞날을 청정히 세우시고자 함이십니다.

원로 대덕 스님들께 앙망(仰望)하나이다.

출가 사문의 도리로서 탐진치 3독을 끊지 못해, 스님들께서 일으켜 세우신 법통을 끊어 버리려 하는 무리들이 있어 저희들이 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나서고자 합니다. 권세와 삿된 것에 단호히 하심은 부처님 뜻이옵고, 스님들께서 '정화불사'를 이루신 원력이었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사리를 분별치 못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치 못하는 이들에게 종풍(宗風)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고자 합니다. 출가 사문이 탐진치 3독을 끊지 못하여 종도들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총무원장의 3선강행은 전 종도들의 애종의 뜻을 저버리고, 현하 종단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우(遇)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애종구법의 마음과 정법을 바로 세우는 의지로 원로 대덕 스님들께 감히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원로 대덕 스님들께 다시 한번 앙망(仰望)하나이다.

2조(二祖)께서 법을 얻기 위해 자신의 팔뚝을 자르신 뜻을 저희들이 기실 알거니와, 법통을 호지하고 종단의 앞날을 위해 원로 대덕 스님들께 글을 올렸나이다.

원로 스님들께서 저희들의 뜻을 어여삐 아시어 종지를 세우고, 정법의 가르침을 두루 포호할 수 있게 하시옵서서. 저희들은 이길이 바로 스님들께서 목숨을 내놓고 종단의 법통을 이은 뜻이라 믿기에 감히 말씀올리는 바입니다.

저희들의 뜻에 감읍(感泣)하시어 삿된 것을 바르게 하고, 스님들께서 세우신 종단의 법통이 세세생생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뜻을 내주시기를 저희들 모두가 간청(懇請)하나이다.

◆ 발원문 ◆

만생명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 중생들은 무명의 어둠에 있어 부처님을 찬탄함에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옵나이다.

시방에 아니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정진으로 8만4천마군을 조복받으라"하시었듯이, 뜻있는 불제자들은 94년 아픔을 통하여 청정승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시는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화합으로서 승가의 질서를 세우시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94년 뼈를 깍는 마음으로 이룩한 개혁회의는 전 종도들의 구종의 열정이 있었나이다. 하오나 개혁정신을 저버리며 종헌을 어기는 3선출마강행과 세간에서도 보기힘든 혼란으로 몰아내는 현총무원장의 태도는 수행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옵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초발심으로 서원을 세우라 하시었습니다.

우리의 서원이 아직 금강석(金剛石)처럼 단단하지 못하여 세상의 일이 뜻과 달리 움직임을 알기에, 오늘 이 자리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초발심으로 다시 원을 세우나이다.

시방에 상주하시고 만생만물을 살리시는 부처님!

부처님께서 세상사 인연을 통해 정각을 이루었듯이, 저희는 10월 30일의 참회정진을 통해 새로운 인연으로 화합승단을 일구는 계기로 삼으려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어 탐진치 삼독을 끊으려는 저희들의 참회를 보살펴 주옵서소.

부처님의 법과 율을 믿고 따르며 종법을 호지하는 모든 이들에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2(1998)년 10월 21일

불교중흥과 종단안정을 위한 정진법회 참석 사부대중 일동과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 올림

애종구법의 일념으로 간절하게
제방의 스님들과 재가불자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본 연대회의는 3선 출마 탐심으로 부처님의 계와 율에 입각한 종헌을 무시하고 자신의 개인적 권력욕을 채우려는 송월주총무원장스님에게 수행자로서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참회 정진법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종단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발원하려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시 유의할 사항은 3천배에서 1만 5천배의 절을 할 예정이므로 사전에 철저한 개인준비를 하시고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3선출마강행과 부정선거 중단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참회 정진법회

■일 시: 불기 2542(1998)년 10월 30일 오후2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주 최: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
■준비물: 가사, 목탁, 죽비, 개인좌복, 무릎보호대, 개인연등과 초, 두툼한 옷
■참석대상: 수행자의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부대중
■추후일정안내: ·11월 1일 저녁 7시 정진법회(예정)
·11월 4일 승려정진법회(예정)
·11월 11일 범불교도법회(예정)

불자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의견을 받습니다.
전화: 02-725-3766,7 통신ID: 천리안Anti29
·보시금 접수: 외환은행 059-19-35455-2 ·예금주:삼선반대

총무원장 3선출마 반대를 위한 범불교도 연대회의